

93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93년도 제1회 임시총회

본 협회 93년도 제1회 임시총회가 지난 3월 17일(수) 오후 2시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성원보고에 이어 이영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협회 내에 일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풍조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진제하고, 회원 모두 굳게 화합하여 당면한 현안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회의 일정 중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토론에 들어가 시·도건축사회장을 주축으로 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이에 적극 대처키로 하였다.

장시간 토론끝에 대책위원회를 통한 대정부 집적을 통해 정부측의 입장이 정해지면 속개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휴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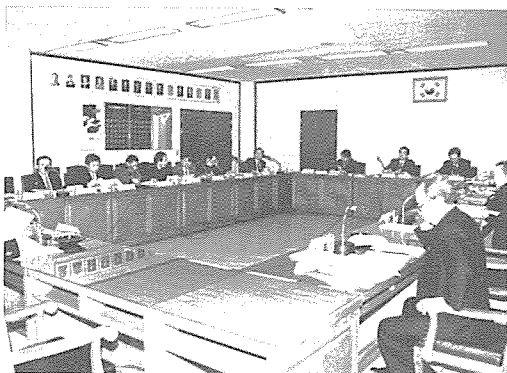
제3회 이사회 개최

본 협회에서는 지난 3월 26일(금) 오전 11시 본 협회 회의실에서 이영희 회장의 주재로 제3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된 주요 부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속개총회 개최일자 및 장소 결정의 건
: 93년도 제1회 임시총회 속개회의는 93년 4월 9일(금)

- 오후 2시
본 협회 강당에서 개최키로 결의
- 분회 설치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충남건축사회 공주분회)
- '93회계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이사회 광경

건축사법 개정 특별위원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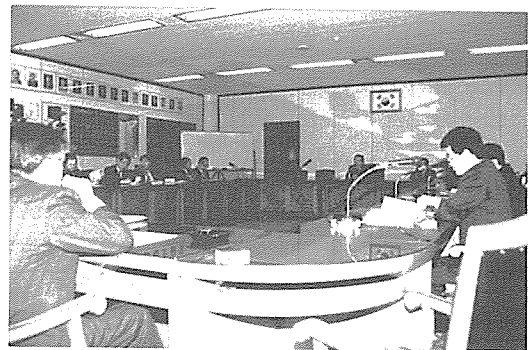
본 협회는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특별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수 : 서울시건축사회장)와 건축사법 개정 연구위원회(위원장 정환호)를 구성, 지난 3월 24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건축사법 개악 반대에 따른 모든 회원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사법 개정·추진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건축사대회에서 토론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한 건의서를 작성, 건설부에 제출토록 하고 건축사법 개정안 전면 백지화 추진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른 제반문제에 적극 대처키로 하였다.

특별대책위원회가 제출한 건

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사의 창작활동 보장, 지원
2. 설계, 감리 법인제도의 신설 철회
3. 건축사의 처벌규정을 합리적인 책임한계의 설정으로 시공자, 건축주와 함께 균형있게 재조정
4. 설계와 감리업무를 담보로 한 공제조합의 설립과 손해배상제 철회
5. 건설기술관리법 독소 조항 제27조(감리전문회사 신설 등) 폐지
6. 건설업자의 건축설계업 진출 불가 등



건축사법 개정 특별 위원회

건축사법 개정 건의서 제출

본협회는 지난 19일 한국종합 전시장에서 개최된 전국건축사대회에서 건축사법 개정에 대한 반대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회원

의 의견을 정리하여 건축사법 개정 특별대책위원회가 작성한 건의서를 지난 3월 25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간담회 개최

본 협회에서는 지난 3월 25일(목) 오후 3시부터 대회의실에서 건설부 관계관과 각 대학교 수 그리고 건축관련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계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국내외 에너지

환경에 대처한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라 에너지의 합리적,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고, 대형건축물 및 에너지 다량 소비형 건축물에 대한 열손실 방지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계기준 등을 수립하기 위한 각계의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93한국건축전 성료

본 협회가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국건축전이 지난 3월 18일부터 개막되어 연인원 관람객 8만명의 성황속에 지난 22일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회는 '93한국건축대제전의 주요행사로서 전국건축사대회와 한국국제건축자제전과 동시에 개최되어 건축인은 물론 일반인이 함께 참석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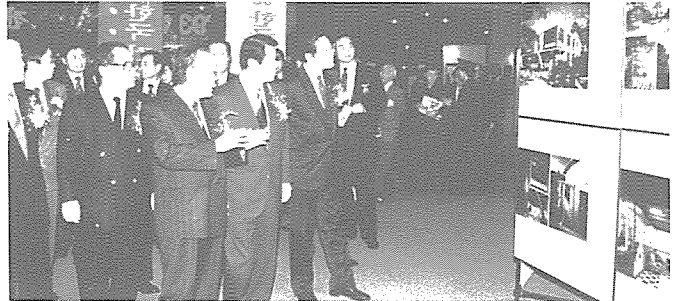
지는 대규모 건축축제가 되어 언론을 비롯한 각계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한편, 22일(월) 오후 2시 전시장내에서 거행된 시상식에서 건축사부문에 '예술의 전당 서

울 오페라 극장'을 출품한 김석철 회원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는 등 건축사부문 우수작 8점을 비롯하여 신인·학생부문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93한국건축전 시상식



'93한국건축전 전시장 광경

건축사법 개정에 관한 건의서

1993년 전국건축사 대회에 즈음하여 전국 4,000여 회원들의 총의에 따라 건설부당국에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우리는 건축현장의 실무 종사자로서 진정한 하나의 건축발전 방향과 국민들을 위한 건축이 되기 위한 충정에서 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창의성으로 국민들의 생활공간을 창출하는 예술분야의 역군들입니다.

우리 건축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능력과 창의성을 확대하고 개발하는 풍토조성입니다.

건축사들을 불신하고 한계가 없는 책임추궁과 관용이 없는 처벌 위주, UR에 대비한 대안없는 대형 사무소의 추구를 내용으로 한 금번 건축사법 개정안은 우리 건축사들의 수용한계를 훨씬 벗어난 제안들입니다.

그리고 소수의견에 의한 본협회안도 그 내용은 대형사무소 위주의 제안으로 우리가 수용하기가 벅합니다.

우리는 정당한 권리와 의무가 지배하고 지성과 문화가 존중되는 풍토를 기대합니다.

우리 건축사들에게 제안한 건설부의 건축사법 개정안은 새로운 시각과 안목에서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운 법제정의 의지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전국회원들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1. 건축사들을 전면 불신하는 바탕위에 만든 건축사법은 일부의 하자과 잘못을 전제로 비약시켜 건축사 전원을 죄인시하고 그러한 바탕위에 만든 법의 규제하에서는 우리 건축사들의 창작의욕 대신에 법의규제를 피해가도록 법이 유도함으로써 창의적인 건축의 싹을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2. UR에 대비해서 설계사무소를 대형 사무소로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는 너무나 황당하고 논리적 비약이며, 건축의 질은 건축가의 개인적인 능력과 창의성에 있지 수의 다수에 있지 않으며,

3. 정부의 할일은 제도적으로 각부문의 균형 발전을 조성하고 발전 시키는데 있다고 보며, 앞으로 건설부안대로 실시될 경우에는 우리 건축사들은 대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대형 사무소나 건설회사에 소속된 사무소만이 생존이 가능할 것이며, 절대다수의 개인 사무소는 서서히 고사되어 가는 괴롭고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4. 우리 건축사들은 자존과 명예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들의 업무를 수행코자 하며 건축주로부터 존경 받아야 할 건축사가 고의와 과실이라는 애매모호한 책임으로 민형사의 고발대상이 되고 우리 건축사 잔원과 건축사보까지 법적 전과자를 만드는 사항을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5. 우리 건축사도 인간이며 어떤면에서는 건축은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써, 단 한번의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본법의 강력한 주장으로써 고의와 과실로 인한 책임은 현재도 민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음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라는 전대미문의 규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상응한 설계비와 감리비는 물가상승이라는 족쇄를 그대로 둔채 우리 건축사는 어떻게 하라는지 묻고 싶습니다.

6. 수많은 행정규제와 면허에 관련된 규제사항에 건축사의 참여없이 관주도로 이루어 짐으로써 인격체로써의 건축사가 아닌 범법자로서의 건축사가 되어 왔으며 건축사 처벌 규정도 건설업과 균형있게 재조정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건의안에 대한 건설부의 의견을 조속한 시일안에 전국회원들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1993. 3. 19

건설부장관 귀하

분당신도시 주택설계 전시회 개최

한국토지 개발공사에서는 3월 30일(화)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분당신도시 주택설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전식에는 이번 설계에 참가한 건축가 20인을 비롯하여 건축관계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이번 주택 설계 전시회는 주택 전람회에 앞서 설계된 주택을 우선 전시회를 통하여 일반에 널리 알리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 초빙된 건축가 20인이 제시하는 이 주택작품들은 앞으로 우리 주거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향후 실제로 지어지는 주택단지는 살아있는 건축교육의 현장으로서 그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전시회 기간중 전시장내에서 참가작가의 작품발표회(3월31일~4월8일)와 '사회학적 측면에서 본 가족제도와 주거문화' 그리고 '미래의 주거와 도시'라는 제목으로 강연회(4월 9일 오전 10시, 오후 1시, 서예관 강당)가 열리며, '한국의 주거문화'에 대한 심포지움이 4월 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예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4월 11일까지 계속된다.

참가작가는 다음과 같다.

姜錫元, 公日坤, 金 洄, 金仁喆, 金鍾星, 都昌煥, 柳春秀, 閔賢植, 朴研心, 承孝相, 嚴德紋, 尹承重, 李星觀, 張錫雄, 張世洋, 曹建永, 趙成龍, 池 滢, 黃一仁(이상 20인)



분당신도시 주택설계 전시회

'93 봄학기 건축강좌 개최

민족예술인총연합회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문예 아카데미 건축강좌가 3월 20일부터 '우리 건축과 세계 건축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 아래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12주 동안 문예아카데미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강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주 : 목구조의 기초 I(장순용)
- 2주 : 목구조의 기초 II(한재수)
- 3주 : 해인사의 배치기법(이상해)
- 4주 : 금산사 미륵전의 구조(문영빈)

- 5주 : 낙안읍성의 공간계획(김홍식)
- 6주 : 답사여행
- 7주 : Tsumi & Koolhaas (정기용, 강혁)
- 8주 : Holl & Eisenman (김준성, 신춘규)
- 9주 : Rossi & Moneo (최욱, 김영섭)
- 10주 : Ando & Ito (최문규, 조성룡)
- 11주 : Gehry & Morphosis (조희철, 손학식)
- 12주 : 종합토론 / 전통건축과 서양건축의 방법론 비교

재블 한국건축인 모임 결성

프랑스에 거주, 유학하고 있는 건축인들의 모임(회장 김홍일)이 1992년 10월에 결성되었다.

이 모임은 프랑스 국가공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건축가들과 유학생들이 주축이 되고 있으며, 학술지 발간과 건축전시회 개최, 건축가 초청 세미나 등과 국내 건축인들과의 교류를

통한 정보교환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유학 희망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며, 현재 프랑스 국가공인 건축사, 건축학교 및 박사과정 재학생과 건축관련인 등 9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연락처 : 김홍일(전화 : 0343-45-7443)

현상 설계 공모

1. 의정부시 종합문예 회관 건립

- 위치 : 의정부시 의정부동 352-1외 9필지(직동근린공원내)
- 응모자격 : 건축사법에 의한 종합건축사 사무소 등록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자
- 응모기간 : 1993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종합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사용 인감계 및 인장 1부
- 작품제출 : 1993년 6월 16일(수)까지
- 제출처 및 문의처 : 의정부시 문화공보담당관실(전화 : 0351-872-1726)

2. 담양군 죽세공예진흥단지 건립

- 위치 :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402-1번지 일대
- 용도 : 전시관, 판매시설, 생산공장

• 응모자격 : 종합건축사사무소 등록건축사

- 응모기간 : 1993년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2일간)
- 작품설명회 : 1993년 4월 14일 14:00 군청회의실
- 작품제출 : 1993년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 제출처 및 문의처 : 담양군 지역경제과 (전화 : 0684-82-5000)

3. 화천 군민 회관 건립

- 위치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 92번지 일대(일반주거지역)
- 용도 : 관람집회시설 및 근린공공시설
- 응모자격 :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단독 및 종합)
- 응모기간 : 1993년 5월 20일까지
- 제출처 및 문의처 : 강원도 화천군청 재무과(전화 : 0363-440-2273)